

PHOTO 사진으로 보는 나라 밖 소식



“실종되는 여성 더 이상 없길”

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시청 주변에서 ‘붉은 드레스의 날’ 행사가 열려 나뭇가지에 붉은 드레스들이 걸려 있다. 캐나다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5월 5일을 ‘붉은 드레스의 날’로 정해 실종되고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의미에서 붉은 색 옷을 나뭇가지 등 곳곳에 걸어 둔다. 행사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거나 붉은 색으로 분장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면서 정부 당국에 원주민 여성들의 실종사건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다.



무서운 십대 알카라스, 최연소 우승

‘스페인 신성’ 카를로스 알카라스(19·세계랭킹 9위)가 알렉산더 조베레프(독일·3위)까지 제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드리드 오픈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4위, 1위, 3위를 차례로 꺾고 또 한 번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알카라스는 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조베레프를 2-0(6-3 6-1)으로 제압하고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알카라스는 자신의 우승인 라파엘 나달(스페인·4위)을 8강에서 꺾고, 준결승에선 세계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를 꺾으며 결승에 올랐다.

뉴스/AP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8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비에트 전쟁 기념비’ 앞에 한 여성이 꽃을 놓고 있다. 이 기념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베를린 전투에서 사망한 8만명 이상의 소련 병사를 기리기 위해 구 소련이 1945년에 세운 것이다. 가까운 공원에는 7000명 이상의 소련군 무덤도 세워졌다. 이곳에서 매년 5월 8일 평화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 화환을 바치는 의식이 열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오늘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남편 대신한 美 영부인 질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왼쪽) 여사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 우즈호로드를 방문해 피란민 대피소로 사용 중인 공립학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와 만나고 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방문했다. 젤렌스키 여사는 바이든 여사에게 “매일 전투가 벌어지는 전시에 미국 영부인이 방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다”며 “용감한 행동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과거 잊은 필리핀 독재자 아들·딸 대권 쯤나

9일 필리핀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투표가 현지 시간 오전 6시에 시작된 가운데,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사용되는 학교 문이 열리자 우르르 물러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8000명의 지방 정부 공직자를 선출한다. 대선에는 1986년 민주화운동으로 쫓겨난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과 레니 로보레도 현직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마르코스가 당선될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 소상공인 복지혜택!

펼쳐라 노란우산

열려라 희망자산

휴양 시설 지원 영화·가족사진 지원 건강 검진 혜택 경영·세무 상담

홍보대사 양지은 홍보대사 김준현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중앙회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지자체 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 월 최대 100만원 납입 가능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